



#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8 호

2010년 11월 20일

발행인: 변 주 선

편집인: 서 한 생

home page:

www.susoo.or.kr

e-mail:

susoo@hanmail.net

100-130 서울 중구 순복동 215 바리점 ■ 1807호    전화 : (02)6399-6500 / (02)720-8116    FAX : (02)720-8117

## 훈훈하고 감사한 선배와 후배



▲ 한서 나눔역 선영 기념관 앞에서



▲ 하이브 맥주에서 즐거운 잔객들



▲ 2010학년도 2학기 입학금 수여식



▲ 2010년도 후기졸업식

## 201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본회는 지난 8월 30일(금)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변주선 회장과 동장의 임원들, 학교 측에서 김종욱 학장과 학장단, 각과 학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재단법인 창관장학회에서 동장의 설립가 주관한 이날의 장학금 수여는 창관장학회에서 독이교육과 심민우(하년) 군 외 4명에게 14,121,000원(등록금 전액), 별은강학재단(이사장 강중식 동문)에서 교육학과 이원웅 외 9명에게 27,736,000원(등록금 전액) 등 모두 15명의 학생들에게 총 41,857,000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변주선 동장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이 미려한 장학금으로 열심히 학업을 닦고 사회에 나가 국가·사회와 모교 및 동문의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당부말 했고, 김종욱 사대 학장은 동문회와 별은강학재단 강중식 이사장께 깊은 감사말 표하며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여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기를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도 이근웅성으로 등록금 전액이라는 큰 혜택을 주신 동문 선배님들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국가에 헌신하고,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 받아 앞으로 후배들에게 그 보답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 - 장학금

#### 1) 창관장학생

학과(학년)	성명
독이교육과(4)	심민우
사회교육과(4)	최은경
지리교육과(4)	서수지
수학교육과(4)	기준경
생물교육과(3)	임고은

#### 2) 별은강학생

학과(학년)	성명
교육학(3)	이원웅
국어교육과(2)	장성민
영어교육과(5)	이지형
불이교육과(4)	경다위
역사교육과(4)	홍상혁

윤리교육과(4)	양혜성
물리교육과(4)	김종필
화학교육과(4)	박재남
지구과학과(4)	전태환
체육교육과(4)	홍예리

## ● 장학생 대표 답사

### - 양혜성(윤리교육과 4학년)

존경하는 선배님, 학장님, 교수님, 먼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후배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고 희생하시는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단기간의 광복을 이룬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 그리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 가운데 있어, 우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선배님들의 큰 희생이 있었음을 저희 후배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살아오신 선배님들이 제정기에 저희 후배들은 더 나은 사회에서 미래를 열어 학업을 해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갈다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들어오고, 내가 갈다서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너무나 많은 감사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망하지 못하여는 저희의 좌오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배님들의 희생과 배려 덕분이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계층이동 가능성을 하고 그를 통해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 있어 교육은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겸손한 마음과 패기 있는 자세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후배들이 사회의 주요한 위치에 자랑스레 자리 잡고 더 나은 국가와 더 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훌륭한 선배가 되었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미약한 부분이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창관장학금 수령 학생의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창관장학금으로 선발된 수학교육과 07학번 기준경이라

고 합니다. 이번 한학기를 강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무척 흥분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머선부터 회사 다니시며 월급을 가져다주시는 아버지 와 집에서 아버지와 저, 제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몇 년전 회사를 그만두시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럭 상공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 사장이 급격히 안좋아지게 되었고, 저와 제 동생들 모두의 대학 학비를 대주시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참나에 강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너무 기뻐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학교육자를 선택한 것은 제가 내린 결정이었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 요구되는 교사라는 직업은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교생실습을 다녀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아이들과 있으니 활기차지고 수업도 하면 할수록 욕심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던 참나 용기를 잃어준 대표수업 후교과 협의회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한마디였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이다." 라는 지금의 '실력' 보다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름 후 저는 일용시절을 밝나. 올해가 안되면 내년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준 사범대학, 특히 동문강학회에 감사드립니다.

2010. 10. 06.  
수학교육과 기준 정

### 동창회 임원 · 사대 학장단 간담회

동창회 임원과 사범대 학장단 간의 간담회가 8월 20일 초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사범대학과 동창회가 모은 행사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조하여, 동창회와 사범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다.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로 하며 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유익한 한때를 가졌다.

#### - 참석자 명단

- 사범대학 측 : 김종욱 학장, 홍준기 교무부학장, 박성혁 학생부학장
- 동창회 측 : 변준선 회장, 박경현 총무부회장, 이병호 조직부회장, 유자호 대외협력부회장, 김강철 상임부회장, 이희자 감사, 김영길 감사

###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출전 결과

지난 7월 4일 모교 권익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에서 개최된 제7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에서 사대 동문들을 다음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 - 단체전 : 공동 3위

崔安基(지리70), 李相勳(물리75), 柳忠均(수학78), 鄭振環(지구80), 金鳳來(화학85)

#### - 개인전

- B조 우 승 : 尹錫泰(화학 73)
- 준우승 : 金潤龍(수학 82)
- 3 위 : 朴大鎭(국어 74)
- C조 준우승 : 李泰雨(생물 63)

### 同窓會報 발송에 관한 案内

本 同窓會報는 毎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毎回 500여부가 반송돼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의 발송비 600만 원 정도, 년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人과 會費 2回이상 未納人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기로 하였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점을 諒知하시고 同窓會 홈페이지(www.snueea.or.kr)에 게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0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 일 시 : 2011년 3월 10일(月) 18시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
- 회 비 : 20,000원

※ 준비 관계로 꼭 사전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흥천 문화탐방을 다녀와서 -

## 2010 문화탐방, '되짚어 보는 우리 교육'



사범대학장학회(회장 卞柱植)는 지난 10월 6일 강원도 흥천군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 날 행사에는 박봉태(국어교육60-53, 서울고대영어교수), 이상주(교육66-60, 전 교육부총리),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일성모병원장)등문을 비롯하여 강원대와 한일대에 재직하는 동문 등 8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탐방은

오늘의 우리 교육을 다시 살피고 반성해 본다는 뜻에서 '되짚어 보는 우리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흥천군 보곡리 소재 남궁역(1863-1939) 선생 기념관을 찾았다.

한서 남궁 역 선생은 '교육자, 공직자, 독립운동가, 언론인, 종교인'으로서 교육입국(教育立國), 구국교육(救國教育)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분이다. 그는 임기 교육을 백척하고 제헌(制憲)의 교육을 주장했으며 감각의 생활보다는 정신의 생활에서 삶의 가치를 탐구할 수 있는 인격의 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교육, 문화교육, 여성교육 등에 힘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선각자였다. 특히 그는 학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민족의 꽃인 '무궁화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무궁화 교육장을 만들어 해마다 수십 만 주화 길에서 온 나라에 보급해 민족정신을 고양하였다. 이런 연유로 흥천을 대한민국 무궁화의 메카 도시라 일컫게 되었다.

탐방을 마친 동문들은 우리 교육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다. 동문들은 돌아오는 길에 하이드 배추 공장을 견학하고 시음을 하였다.

(글:박경현-국어교육과 64)

### ■ 會長 勸募 (8.20~10.31)

- 8.20 사범대 장학금 수역
- 9.7 정관대상 운영위원회 회의
- 10. 각과 동문회장 회의
- 15. 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
- 30. 靑言會 회의 참석
- 10.5 송년회 준비 회의
- 17. 서울대 총동창회 휴거당대이 참석
- 28. 송년회 준비 회의
- 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

### ■ 동창회 來訪 人士

(8.1~10.31)

- 金潤壽(教育) 53 전 인하대 교수
- 李澤鎔(教育) 53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소장
- 李相模(教育) 56 본회 고문
- 鄭仁植(生物) 58 전 한국도원대 총장
- 李貴子(家政) 60 명지대 명예교수
- 權澤華(政行) 61 전 중앙일보 이사

- 朴性德(教育) 61 단국대 석좌교수
- 李曉澤(教育) 61 국회의원
- 朴東烈(教育) 61 전 사범학교교원연금 관리공단 상무
- 韓吉子(敎心) 61 여성동맹회 회장
- 金英吉(教育) 62 전 상봉고 교장
- 李澤鎔(教育) 62 배우 사
- 鄭瑞興(體育) 62 한국 스포츠심리연구원장
- 金慶德(國語) 63 전 중앙대 교수
- 鄭應根(體育) 63 체육교육과 전문교장, 전 서울대 교수
- 朴景賢(國語) 64 경찰대 교수
- 서현영(國語) 64 인천 일석방송 회장
- 金榮聖(生物) 64 전 여성부 총무
- 沈美那(體育) 64 전 한울승 교장
- 俞貞順(體育) 64 전 본회 감사
- 高寶英(英語) 65 영어교육과 회장, (주)다섯책 대표이사
- 崔英子(英語) 65 여성동맹회 총무
- 鄭炳善(教育) 66 한국교육학회 회장

- 李士鎔(地理) 66 지구과학과 교육과 회장, 학교교육지원본부장
- 洪泰福(國語) 67 국어교육과 회장, 명지전문대학 교수
- 崔統賢(社會) 67 사회교육과 회장, 전 강원대 총장
- 申正顯(化學) 67 화학교육과 회장, 새울과학고 교장
- 柳子孝(佛語) 68 국제연합법률 부이사장
- 方在旭(生物) 68 생물교육과 회장, 중앙대 교수
- 李納好(英語) 70 서울대 제과당학교 교장
- 崔安基(地理) 70 송산고 교장
- 李元福(國語) 71 전 한국요총 회장
- 金貞會(社會) 74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 朴英植(英語) 76 변호사
- 盧在賢(國語) 77 중앙일보 논설위원
- 蘇振泰(英語) 77 경향신문 국제부 선임기자
- 崔錫勳 전 경인교대 총장
- 許 錫 중앙대 명예교수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 ■ 후기 학위 수여식

지난 8월 31일(화) 오후 3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2010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박사 29명, 석사 72명, 학사 107명이 학위 수여를 받았다.



## ■ 정년교수 환송연

지난 9월 29일(화) 오후 5시, 교수회관 율령홀에서 영어교육과 김길중 교수와 역사교육과 기미자마 가르치코 교수의 환송연을 가졌다.



## ■ 기획부학장 임명

지난 10월 1일(금), 평생교육과 전상하(생79) 교수가 기획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 ■ 사범대학 교수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난 10월 15일 사범대학 한마음 교수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15개의 학과 교수들이 모여 양궁, 골프, 무호, 농구 등의 종목에 참여하였다. 각 학과의 교수들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체육활동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하나로 화합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인(仁), 의(義), 예(禮, 禮儀) 네 개념으로 분성되어 단체경기와 골프 질삭, 농구 자유루, 무호 등으로 구성된 개인경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대회 MVP는 체육교육과 나영일 교수(79)가 차지하였다. 한마음 교수 체육대회는 사범대학의 후원을 받아 체육교육과에서 주관 하였으며 사범대학 교수들이 한마음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 삼랑고등학교 교육·봉사 및 학술교류 연구 협약 체결

지난 10월 28일(목) 오후 1시, 교육·봉사 및 학술연구의 발전과 효율적인 교류를 위하여 상호 협력 체결을 하였다.



## ■ 教育學科

### ◆ 제11회 교육연구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교육연구국제학술대회가 9월 29일~10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대 및 호림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교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New Educational Paradigm for Learning and Instruc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10여 개국 40여 명의 외국학자를 비롯하여 총 3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교육학과가 주관하여 10여 년 이상을 이어져 온 전통을 자랑하는 ICER는, 2011년에도 10월 27-28일 양일에 걸쳐 「Education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 A Critical Reappraisal」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國語教育科

### ◆ 2010년 2학기 동문 장학금 수여식



2010년 2학기 同門會獎學金 수여식이 지난 9월 7일 母科 학과 강실에서 거행되었다. 母科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장학금 기탁에 힘입어, 모교 사범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장학금 수여율이 가장 높은 자에 속한다. 母科 명예교수이자 본회 고문이셨던 故 李應百(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李應百獎學金과 故 鄭英淑(48) 동문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鄭英淑獎學金 수여식을 겸한 이 자리에는 수상자와 동문 회장, 이강득 전 회장, 그리고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獎學金', 故 胡石 金光浩 교수(89)의 뜻을 기려 향후 국어교육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金光浩獎學金'을 비롯하여 2007년 母科 60돌을 맞아 순 동문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금'의 수여식도 母科와 동문의 주관으로 함께 이루어졌다. 장학금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國語教育科60돌	
同門獎學金(동문기탁금전액)	장민재(3학년), 임이래(3학년)
同門獎學金(동문기탁금전액)	대동민(2학년)
李應百獎學金(50만원)	경보매(서사년), 서 래(서사년)
鄭英淑獎學金(50만원)	진가연(서사년)
다다獎學金(동문기탁금전액)	이현진(4학년), 심세원(4학년)
金光浩獎學金(동문기탁금전액)	박기순(4학년)

### ◆ 故 이응백 선생님 추모식

지난 9월 11일(토)에는 碑園生活社(대표: 유성규(59) 동문)가 주관하는 故 이응백 선생님 추모식이 서초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거행되었다. 2시간가량 거행된 이 자리에는 母科의 동문 회장, 母科의 윤희원 교수, 윤여탁 교수를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선생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나누었다.



### ◆ 2010 동문의 가을 나들이

지난 10월 23일(금)과 24일(토)에는 국어교육과 동문의 2010년도 가을 나들이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충북 충주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어제와 오늘의 만남, 현재와 내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가을 나들이에는 국인 시인 金南(94)과 동문과 朴棟久(56), 朴贊濬(58), 李贊勳(58) 동문을 비롯한 30명의 동문이 함께 모여 고은 시인이 죽음에 대해 노래했던 문의마을, 오늘을 상징하는 청남대, 현재와 내일이 만나는 월악산 미륵리사지와 하늘재 등을 돌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더불어 母科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英語教育科

- 8월 골프모임: 8월 28일 화성(수원) 상록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학번의 선배들이 모여서 동문의 화합을 위한 골프대회를 가졌다.
- 국악공연 관람 및 총회준비모임: 영어교육과 총동문의 일원



- 10명이 10월 31일 국립국악원에서 <아리랑 페스티벌> 공연을 관람하고, 2011년 신년하례식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
-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 안내: 2011년 1월 5일 오후 6시 서초동(지하철2호선 서초역)에 위치한 코알레딩플라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예년에 무명에게 전달하던 동문의 장학금을 이번부터 다윗명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모금 계획을 확정했다.

### 獨語教育科

• 독어과를 창립하신 이등승 명예교수 팔순잔치 겸 동창회가 11월 30일 저녁 7시 호림교수회관 1층 목련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명예교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공부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교육(erziehen)이라는 것은 피교육자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고집어내어 신장시키는 것이다"는 지혜의 교육이념으로 후진양성에 힘써오셨다.



김재호 : Study on Pentacene Rim Growth and Charge Injection Properties at Metal-Pentacene Interface

### 化學教育科

#### ◆ Home Coming Day 행사

화학교육과는 지난 10월 9일 2010년 화학교육과 Home Coming Day 행사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숙 회장 특강, 정기총회, 식사 및 연회가 있었고, 동창회를 2년간 이끌 자기 회장으로 임구경(동국대 오두환89) 교강선생님이 선출되었다. 이날 문성현(2학년), 김재진(2학년), 송현주(2학년), 박다혜(3학년) 4명의 재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오우진

### 社會教育科

#### ◆ 2010 사회교육과 추계 동문동산대회

사회교육과 총동문회(회장: 최현길, 67학번)는 지난 10월 9일 가족 동반 권익산 동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동산대회에는 52학번부터 10학년까지 세대에 걸친 동문들의 참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을 동반한 40여 명이 함께 해 더욱 뜻깊게 지어졌다.



### 物理教育科

#### ◆ 2010년 2학기 학술행사

1 물리교육과 동창회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 기탁 - 물리교육과 동창회에서는 그간 모은 동창회 기금 3천만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장학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2 카이 평화봉사단 Ken Epstein 내외 방문 - 1969년 평화봉사단으로 내한하여 본과에서 근무한 Ken Epstein내외의 본이 한국재단의 요청으로 방한하였다. 이에 신희명, 이수호, 김대식 명예교수, 권재승 교원대 총장 등 당시 본과 구성원과 현직 구성원들이 함께 맞이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미국에서 교육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 Ken Epstein으로부터 당시 학과의 사진 자료를 기증받았으며, 물리교육과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었다.

3 졸업 논문 포스터 발표(11월 25일) - 18등에서 학부생의 졸업논문 최종 발표와 대학원생의 졸업논문 중간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포스터 발표를 통해 재학생들 서로 간의 논문 내용을 알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으며,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 ◆ 2010년 1학기 물리교육과 박사학위 취득자

이정원 : 상대주의 관점을 지닌 과학교사의 교육적 생애와 실천에 관한 사례연구

### 生物教育科

#### ◆진·현직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모임

지난 10월 29일(금), 생물교육과 동문회에서는 학교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과부 및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에 전념해 오실 전·현직 동문님들 2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장 및 교육 행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쌓는 자리를 공동에 근차 두부촌에서 가졌다.



#### ◆ 동문 테니스 및 배드민턴 대회

지난 10월 30일(토), 남세도 화강한 가을 날 서울대 체육관과 테니스 코트에서 생물교육과 동문 테니스 및 배드민턴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생물교육과 동문 배드민턴 대회는 올해로서 6회를 맞이하여 2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같은 시간 테니스 코트에서도 15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하담배 테니스대회가 열렸다. 체육대회 후 추수감사대회를 겸하여 제



유대에 참가한 동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체육대회와 관련한 옛 애기와 담화를 나누며 즐거운 웃음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로 이혼일곱이신 김준민 은사님도 참석하시어 과거를 회상하시는 등 정중한 모습을 보여 주셨다.

## 體育教育科

### ◆ 2학기 장학금 수여

2010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9월 3일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08학번 이상혁, 06학번 김대훈 학생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양현식 장학금, 체육의 장학금, 교수 장학금, 정관 장학금, 천재교육 장학금, 소천 장학금 등의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적 우수 장학금	이상혁(08), 김대훈(06)
양현식 장학금	도경훈(08), 김명용(09)
체육의 장학금	하형준(05), 변지훈(05), 하승권(05)
교수 장학금	박지연(08), 서민우(08)
정관 장학금	홍재리(08)
천재교육 장학금	박이선(08)
소천 장학금	태성진(08)
교육연구재단 장학금	김현기(08)

## 동 문 회 소 식

### 여성동문회

#### ◆ 청의대 경내, 칠궁 및 시장채 관람

지난 9월 8일은 우리 여성 동문들에게는 참으로 축복받은 날이었다. 전남까지 비가 오고 며칠간 날씨가



그날은 비도 그치고 날씨가 선선하고 햇볕도 강하지 않아 신쾌하는 데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날씨가였다. 39명의 우리 여성 동문들은 청의대 관내의 잘 구꾸어진 녹지원, 춘추관, 본관 영빈관 등을 거쳐 이즈시의 왕릉을 출산한 후궁들의 사당이 있는

칠궁을 돌아보고 청의대 밖에 있는 시장채에 갈만 들었다. 그리고 도솔촌으로 이동하여 담소를 나누며 삼계탕을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다.

#### ◆ DMZ 관광

10월 23일(금) 무척 날씨가 좋은 날, 여성동문 40명이 참석하여 버스 한대로 임진각을 돌고, 약



1.6Km의 제 3땅굴을 모노레일로 돌아보고 통일촌에 있는 강단 풍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도라산 전망대에서 먼도하지만 가까운 북한의 마을을 볼 수 있었다. 남한에서는 경의선 최북단이지만 북한의 최남단역인 도라산역대를 돌아보고 버스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에 황의 장승이 관직에서 물러나 갈 태기를 친구 삼아 여생을 보내신 반구정에 들러 옛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고 오후 5시쯤에 서울로 돌아왔다. (여성동문회 사진은 모두 홍성숙 동문께서 제공)

### 청랑회

지난 10월 9일(토) 2010년도 2차 청랑회 회강 윤용혜) 모임이 있었다. 청랑회 사상 처음으로 부부동반(약 40여 명 참석) 단재고 국립국악원 우연당에서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출연한 「명인명품」을 관람하고,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길」으로 이동하여 가족인사와 회원들 간의 근황이야기 및 덕담을 주고받으며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청언회

지난 9월 30일 청언회 가을모임이 부민속에서 있었다. 이날은 이동식 회강을 비롯하여 1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따뜻한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올해 송년회를 겸한 청언회 모임은 12월 9일에 서울대사대 공무원들의 모임인 '청공회'와 별조인들의 모임이 연합해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9년의 글

제6강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여서는 풍여강으로 복부하면서 근대 자격증사제를 도입한 일화, 제2의 고향인 화곡동에서의 이력서전 분사활동, 그러은 부모님 회고, 자자의 신앙생활 등을 담았습니다.

필성분은 나무는 뿌리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비범함을 보였던 저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회의 목자'로서의 빛을 발해 왔음이 회고록 전편에 넘치고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추억을, 청-장년에게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교과서적 회고록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고학음 고려대 석좌교수)



## 변혁의 시대에서



청남 정원식 박사의 최고록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자는 최고록 서문에서 자신이 반세기 가 넘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직전경우(石田謙幸) 즉, 자갈밭을 가는 황소처럼 살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전경우는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사람의 기질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한 함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황해도 사람이다. 황해도와 아름다운 산하는 이제 어렴풋한 영상으로 가물거리지만 나는 여전히 내 고향향을 사랑한다. 석전경우가 말하는 황해도 사람들의 기질을 나 또한 갖고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저의 대부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최고록을 쓰다 보니 다소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있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했음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 하나는 최근의 일처럼 생생하게 도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고록은 6개 분야로 나누어 작성했으며,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전편에 걸쳐 후학들이 귀감 삼을 만한 감동적인 내용으로 꼭 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1장 '교육의 길'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사회적 목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 해방 후 혼란기에 국립대 설립안 관철을 위해 학생 신분으로 피의자 어떻게 싸웠는지, 도서 울대 교수 시절의 이모저모, 교육 지도자 육성과정 등을 비교적 소상히 적었습니다. 자신의 야호인 청남(淸南)의 유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나는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남쪽으로 간다. 이제부터 나의 이름은 청남이다”라고 자작 호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2장 '미지의 세계'에서는 3편에 걸쳐 미 피바디대학에서의 유학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파견된 피바디대학 교육사절단의 일원으로 1년 4학기제 석사학위 과정, 다시 3년 후 2년의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경질하고도 3년 내물을 추억담으로 적었습니다.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눈을 감고 깊은 시절, 학문의 열정을 불살랐던 피바디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면 낯은 사진첩을 넘기듯

아름다운 캠퍼스의 정경과 정겨운 얼굴들이 평화롭게 지나간다. 아, 그리운 피바디 시절이여.”

이어 4편에서는 ‘카이언스 카운슬링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 '공직의 길'에서는 문교부장관 취임, 전교조 파동, 국무총리 임명, 밀가루 세제,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등 6편에 걸쳐 경질담을 실었습니다. 2년간의 문교부 장관 시절에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임을 관철시켜 8년간 매년 3천6백여 원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함으로써 노후 교사, 낡은 책갈상, 저예산 번스 개량 등의 환경개선에 투입할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파동을 겪으면서 1천4백 명의 교사를 해직할 수 밖에 있었던 것은 가슴아픈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취임 초기 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국이대여 갔다가 운동권 학생들에게 밀가루 세제를 받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자는 이른날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내 최후의 날 내 종이를 태우고 싶다”며 당시의 처절한 심정을 토로해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겪고 몇년간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저세치면서 소란하던 학원이 잠잠해지고 사회의 평온을 되찾아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4장 '기교에 서서'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후보 삼지대적 위원장, 서울시장 낙선, 사랑과 봉사, 길, 장애아동 복지 등 4편에 걸쳐 영욕과 보람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총재시절인 2000년 8월 역사적인 남북 이산가족 제1차 상봉을 성사시킨 점을 큰 보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5장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그리운 친구들, 소중한 만남, 위대한 가르침의 순으로 적었습니다. 1980년 고향의 정방산 이름을 빌려 10명의 동향 친구로 '정방향우회'를 만들어 매달 모임을 가졌으나 혹은 작고하고 연로해서 이별 전황과 안부나 묻는 치지가 뻗다는 서글픈 얘기에서부터, 교육의 동지 이영태 교수, 호방한 밋 흥준보 회장 등 이제는 유명을 달리던 그러한 벗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소중한 만남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제자 박성수 박사, 고이노미야의 한창도 장교, 말없는 후원자 이세용 이사장, 위대한 가르침의 대상으로 강원을 목사 및 오천석 박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편으로 계속)

■ 朴炳勳(49) 서지학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재물(在物) 학자 박병선 박사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받는다. 프랑스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적지실례요절을 찾아내 고증하는 등 현신한 공로다. 서울대는 "이국에서 서지(書誌)학자로 활동하면서 빼어난 문화재를 연구해 조국의 명예를 세상에 알렸다"며 "특히 암부명 중인데도 병인양요 자료를 모아 출간하기 위해 지난 여름 프랑스로 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을 감동 시켰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1950년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1955년 루마니아 민간인 여성 최초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프랑스 고등교육원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박사과정 때인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도서관에 소장된 적지실례요절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 사범대학 동창회는 2009년 송년회에서 박병선 박사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으로 추대하였다.

■ 鄭元植(49) 전 국무총리

최고로 출판기념회 성황

정원식 동문의 최고로 출판기념회가 지난 11월 4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00여 명의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책소개 별도)



■ 閔丙峻(52) 한국ABC협회장, 본회 고문

민병준 한국ABC협회장은 10월 10~13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IPABC(국제팬북부추진사업) 총회를 열었다. 미국·영국·스페인 등 18개국 ABC기구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인쇄·오버리·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조사·속경의 향상과 새로운 기업 도입 등을 논의했다.



■ 李靈珍(53)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이성진 명예교수는 지난 8월 28일 임기 3년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 俞在浩(53) 명동안과 원장

명동성모안과 원장으로

안과 각각 수술의 1인자인 명동안과 김재호 원장이 9월 15일부터 현재 위치에서 멀지 않은 명동의 UNBSOO회관 7층의 '명동성모안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한다.

전화 : 019-211-2383 / 02-319-9300(병원)



■ 卞柱仙(60) 본회 회장, 한국이동단체협의회장

제21회 IPCW 세계포럼 한국대표로 참가

변주선 회장은 11월 8일(월)~11일(목)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IBM Executive Conference Center/IBM Learning Center)에서 진행된 제21회 IPCW 세계포럼(IPCW World Forum 2010)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IPCW가 주최하고 The Committee for Hispanic Children and Families(CHCF), Mentoring USA and Mentoring USA/Italia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Advancing the Global Movement)'으로 "건강한 삶 증진, 질 높은 교육제공, 확대·확적·폭적으로부터 보호, HIV/AIDS와의 전쟁"이 주요 논제로 다루어졌다.



■ 徐廷善(60) 명지전문대학 총장

'2010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수상

명지전문대학 서경선 총장은 지난 8월 24일(금)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사회책임교육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0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은 대학교, 대학원 학원, 교육단체 등 교육분야를 대상으로 교육선진화와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육기관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종합대상과 10개 부문의 대외 및 교육기관을 회장·발표하였으며, 명지전문대학은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사회책임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 權厚津(61) 모교 명예교수, 시인

구상문학상 본상 수상

유안진 문장은 지난 10월 28일, 제2회 구상문학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거짓말과 참말하기'다.



■ 姜義貞(61) 전 여의도여고 교장

'자랑스러운 동덕인상' 수상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덕여고에서 열린 '동덕 장학 100주년 기념식'에서 병행해 동덕여학단 이사장이 강의장 동덕여중·고 동창회장에게 '자랑스러운 동덕인상'을 주고 있다. 동덕여대는 강의장 문장과 이덕분 생애대 제육학과 교수, 강명자 꽃마을병방병원 병원장, 이금희 동덕여재단 이사, 심재평 명필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동덕인상을 수여했다. (조선일보 2010. 9. 13(월) A29 면에)



■ 趙在吉(61) 미국세리투스 사장

자서전 '소명' 출판기념회 개최

조재길 문장이 지난 10월 1일 여의도 국회의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인생 역경을 담은 자서전 '소명'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영광담을 자랑하



기 위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났는가를 말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 동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있는 세리도스에서 2007년 최초 한인 시의원에 당선, 2010년 최초 한인 시장에 당선되었다.

崔鍾鈺(地.63) 이화여대 특임교수

최씨는 동문은 9월 중 저능가능발견법에 의한 저능가능발견위원회의 위원(대통령 위촉)과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위원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을 심사위원(이상 환경부 장관 위촉)의 위원에 위촉되어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다.

朴景賢(國.64) 경찰대 교수

'지도자의 화법' 신간 출판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 가운데 하나인 화법에 관한 책을 경찰대 박경현 교수가 펴냈다. 한국화법학회장을 역임한 박 동문은 요즈음 한국사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구형행동이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언어 행위는 기본적으로 '말'보다 '사람'에 중심을 두고, 말하는 이의 '사단할'을 중요시한다며 지도자의 언어 행위는 최소한의 품위나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하고, 말은 유쾌하게 '말'하는 것보다 '물어르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吉中(英.64) 서울대 교수

김길중 교수가 8월 31일 퇴임식을 가졌다. 김 교수는 64년 영어교육과를 입학, 68년 졸업, 70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1년 미텔사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83년 모교에 부임해 영문학을 강의했다. 모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장 등을 지냈다.

金柄武(社.64) 전 공주대 사대 학장

인문사회문화연구원 개설

김병무 동문이 교육인생 40년, 삶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의 삶의 단계를 봉사하고 모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인문사회문화연구원을 개설했다. 연구원은 사회적 정열을 쌓은 회원들이 그간 쌓아 온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의 문제점, 특히 교육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사회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부설로 '인문사회문화탐방연구회'를 두어 회원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다양한 세계문화를 이해하며 상호 교류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黃南濤(社.64) 전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영지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

황남태 동문이 영지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황 동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과 서러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劉維一(歐.65) 천주교 근공교구장 주교

유수일 동문은 지난 9월 1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성 김대건신당에서 서품식을 가졌다. 유 동문은 1973년 작은형제회에 입회, 1980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2010년 7월에 제3대 근공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金載弘(國.66) 경찰대 교수

보관 문화훈장 수훈

김재홍 동문은 지난 10월 16일 문화예술포럼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 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文龍錫(歐.67) 모교 교육학과 교수

자기 韓國教育學會에서 선출

문용선 동문이 10월 27일, 자기 한국교육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문 동문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자기가 회장에는 김영수(교.68) 한국교원대 교수가 뽑혔다.



金正基(社.74)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취임

김정기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9월 27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김 동문은 경북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와 미국 뉴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신문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許英聖(地.74)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허영성 동문이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특별위원장에 위촉되었다.



鄭文珍(英.76) 계명대 교수

해럴드 핀터의 분석을 옮긴

정문영 교수가 영국의 극작가이자 활발한 정치운동가, 그리고 '은밀한 페미니스트'로 생을 마감한 해럴드 핀터(20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극작품을 분석한 '정치성과 감정적성'을 출간했다.



鄭在浩(國.79) 모교 외교학과 교수, 중국연구소장

정재호 동문은 지난 5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白津棟(敎, 80) 모교 교육학과 교수 임명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에

지난 7월 말 계면된 서울대 보직교수 중 입학 관리 본부장에 敎大 교육학과 박순근 교수가 임명되었다.



■ 卓正棟(敎, 86) 서울대학교 교사

서울대 '관악봉사상' 수상

박정근 동문은 10월 14일 서울대 개교기념식에서 '관악봉사상'을 받았다. 박 동문은 2004년 '만년 골', '전매선택'이던 서울대 이구일의 전 감독으로 1승을 이끌려 주역이다.



■ 徐泰烈(敎, 84) 고려대 입학처장

한국사 회교교육연구학회 회장 선출

한국사 회교교육연구학회가 지난 8월 14일, 고려대 은호우신교육관에서 개최한 '2010 연차학술대회'에서 고려대 서대일 교수를 일기 2년 회장에 선출했다. 한국사 회교교육연구학회는 1982년에 창립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육학회다.



■ 삼성생명재단

비추미여성대상 10주년 행사

삼성생명이 주관하는 비추미여성대상의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9일 삼성생명 국제회의장에서 10년 동안의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도 시상식을 가졌다. 우리 동창의 동문 중에는 2007년도에 朴炳魯(敎, 佛史學者, 金后翼家53人, 詩人) 2009년도에는 卞柱山(英60, 本會 會長) 동문 등이 수상한 바 있다.



■ 李聖榮(英, 86) 교원단체협력담당

교과부 첫 여성 인사과장에

교육부 첫 사상 첫 여성 인사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교육단체협력담당인 이 동문을 인사과장(서기관)으로 임명했다. 형식 38회고, 인천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서기관 등을 지냈다. 을 초부터는 교원단체협력담장을 맡아 교총-대한 교과부의 창구 역할을 하며 (대행) 전교조 여성사 교 물었다.



■ 敎員 人事 (2010. 9. 1)

- 金植鎭(敎) 83 장시 공립고등학교 교장
- 朴賢奉(敎) 87 평양중학교 교장
- 趙日大(敎) 85 도봉중학교 교장
- 金成武(敎) 70 광진고등학교 교장
- 李時鼎(敎) 71 잠신고등학교 교장
- 金榮錫(敎) 71 풍광중학교 교장
- 鄭成根(敎) 71 신사중학교 교장
- 宋錫勳(敎) 72 상봉고등학교 교장
- 李玉賢(敎) 70 교육청 중앙교육정책과장
- 安錫煥(敎) 72 성곡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 趙成浩(敎) 72 구로중 교장
- 李中鼎(敎) 72 신곡고등학교 교장
- 張悅堂(敎) 73 봉평중학교 교장
- 金海濤(英) 73 강남교육지원청 장학사
- 金兌堂(英) 73 교육청 평생교육과장
- 朴錫範(敎) 73 신도립고등학교 교장
- 成聖勳(敎) 73 구로고등학교 교장
- 張錫範(敎) 73 서울체육고등학교 교장
- 費錫鎭(敎) 74 교육 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韓元在(敎) 74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 安勳勳(敎) 74 강릉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朴文煥(敎) 74 과학인사관 기획조사부장
- 卞靑根(敎) 74 봉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金東聖(敎) 74 북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李勳勳(敎) 75 복일중학교 교장
- 李熙元(化) 75 동명중학교 교장
- 張錫範(敎) 75 교육연구 정보원 인사정보교육지원부장
- 韓玉玉(敎) 75 재광중학교 교장
- 李俊源(敎) 76 교육과 학기술부 장학관
- 安勳勳(敎) 76 용곡중학교 교장
- 鄭勳勳(敎) 76 잠신고등학교 교장
- 成錫鎭(敎) 76 상암고등학교 교장
- 李惠堂(敎) 76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지도담당 장학관
- 申錫言(生) 76 서울과학교등학교 교장
- 金錫鎭(化) 77 한성과학교등학교 교장
- 朴道源(生) 77 인안중학교 교장
- 丁錫南(地) 78 남산중학교 교장
- 卞山石(敎) 79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黃錫吉(敎) 79 교육청 기획예산담당 장학사
- 金錫鎭(地) 79 유희중학교 교장
- 沈中聖(化) 79 수송중학교 교장
- 李錫範(敎) 80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 李錫(地) 80 관악고등학교 교장
- 張錫甲(英) 80 교육연구원 중앙교육연구부장
- 梁永鼎(物) 80 효문중학교 교장
- 李在實(敎) 81 신원중학교 교장

- 張光熙(譯) 83 교육청 중앙교육정책과 장학사
- 宋在錫(論) 83 교육청 중앙교육정책과 장학사
- 韓錫鎭(論) 83 관악중학교 교장
- 沈勳勳(譯) 83 장시교육 지원청 장학사
- 李中鼎(譯) 84 교육청 중앙교육정책과 장학사
- 金榮錫(譯) 87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 金錫範(譯) 87 북부교육 지원청 장학사

■ 慶 弔 事

- 李錫任(地) 59-1-1 서울대 사대부고 교장) 별세 9.14
- 金基化(化) 64-1-1 경수송 교장) 부인상
- 李英愛(化) 87-1-1 권태송 교장) 시무상 (11.5)
- 馮錫鎭(論) 68-1-1 서울대 교수) 모친상 (8.16)
- 張錫鎭(論) 70-1-1 춘천교대 교수) 부친상 (8.21)
- 安相錫(論) 71-1-1 인천시청) 부인상 (11.1)
- 朴英錫(論) 73-1-1 KB금융지주 사장) 부인상 (8.26)
- 金成勳(地) 74-1-1 봉곡대 교수) 병모상, 민부상(서사) 84년 중-한국 여성개발원) 모친상 (11.9)
- 韓錫鎭(敎) 78-1-1 봉무진 신홍승 교장) 부인상 (9.5)
- 韓承勳(物) 88-1-1 대명중 교사) 부인상 (9.2)
- 신정원(대학원) 행정과장 음악교육학과, (88) 시무상 (11.9)

## 동창회비를 납부합니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변주선)

### 회비내역

동자문위원:	100,000원 이상
동회 회장:	2,000,000원 이상
동부 회장:	500,000원 이상
동감 사:	300,000원 이상
동상임이사:	200,000원 이상
동이 사:	80,000원 이상
동일반회비:	20,000원 이상
동정액회비(1회):	200,000원

## 회비 납부자 명단 (2010. 8. 11.~2010. 11. 10.)

### 임원회비

최재호(회장·7·가문위원) 10만원

### 평생회비(20만원)

임형진(가1)	나근형(가59)	정윤근(가88)
김태경(가70)	김봉용(가60)	

### 이사회비

(교목)	(불애)	(물리)
전근(가1)	이종(가59)	이승우(가61)
(교심)	(사회)	(생물)
유재준(가80)	신용래(가50)	김순홍(가50)
(국어)	홍선용(가57)	최병주(가59)
정우성(가59)	나정운(가59)	복준근(가74)
김홍근(가80)	이찬근(가73)	(지구과학)
이상우(가81)	(역사)	김수용(가63)
최은환(가69)	오성종(가59)	이규석(가69)
최은용(가69)	(지리)	(체육)
고영산(가79)	신용성(가81)	윤종상(가50)
(영어)	국태용(가69)	이규식(가59)
김영순(가69)	최서진(가69)	송두수(가67)
최병자(가69)		성명이상
		성명이상

### 일반회비

(경사)	(사회)	(화학)
김규민(가42)	최안영(가51)	한인(가63)
(경여사)	이현의(가54)	(생물)
임종남(가36)	(역사)	노두홍(가51)
김은주(가45)	김영순(가70)	최영준(가55)
(교육)	송영호(가7)	신영희(가56)
이요봉(가61)	김영천(가55)	이성규(가57)
(교심)	김영희(가57)	이시훈(가57)
한수인(가59)	공신태(가75)	안홍숙(가56)
이인수(가54)	(지리)	한인(가63)
(국어)	김용복(가57)	김영희(가64)
구인환(가50)	김수신(가80)	(가정)
박종태(가51)	김우현(가64)	서태순(가55)
박호정(가59)	(수학)	이희숙(가57)
박정민(가57)	이길용(가61)	(체육)
김선식(가59)	박규원(가71)	이우호(가53)
김종재(가61)	김현기(가79)	권영호(가54)
이창호(가71)	김홍일(가09)	홍영표(가54)
(영어)	(영어)	허연준(가56)
정영희(가49)	최인수(가55)	이성철(가60)
정우식(가50)	윤재봉(가56)	윤성환(가60)
유완수(가59)	최희태(가61)	김정호(가65)
정봉채(가59)	안정훈(가69)	권오현(가71)

##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전체교육의 효율화 회관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신 동문들께서는 역수의 과다에 깨닫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10. 8. 1.~2010. 11. 10.)

황선용 (사·57)	200만원	염성미 (영·84)	50만원	최석진 (지·63)	10만원	박규원 (수·71)	5만원
------------	-------	------------	------	------------	------	------------	-----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성호(英語·58세)

한양대 영문학 명예교수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도 한다. 변칙무쌍한 이런 길을 걷다보면 우리는 가끔씩 가랑이진 길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늘 머뭇거리게 마련이다. 이 순간은 물리적인 시간과는 상관이 없이 사실 긴 시간이다. 길고도 긴 이 순간에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기 때문이다. 지난 길이 언뜻 떠오르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미리 그려보기도 한다.

그런데 동안 양과 뭐가 모아지면서 이내 익숙한 '자기 태도'가 나타난다. 흔히 말하는 '살의 방식'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드러난 '자기 태도'에 따라 우리는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된다. 운명을 매기는 이 선택된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

이렇듯 선택의 한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프로스트(Robert Lee Frost)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다. 이 시는 그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잘못 읽히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속의 '나'가 갈림길에 서서 한참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숲이 노랗게 물들고 낙엽이 필 주는 것으로 보아 그가 걸어온 길이 그리 맑진 않음이란 여전히 머뭇거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을 혼자 걷는 "한길 걸은"이라고 했다. 하기가 싫은 길은 결국 혼자 걷는 외길이지만, 그 외로운 길손은 가랑이진 길에 서서 '큰 나무 밑 덩굴에서 굶어온 한쪽 길을 열피람치 지켜보고' 있었다. 갈림길에서의 머뭇거림이다. 무엇이 그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을까? 여러 번 겪었지만 길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길들지도 다름지도 모를 다가오는 날들을 생각했음직하다. 그러다가 그는 되돌릴 수 없는 한 가닥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했다. 선택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기도 한 '자기 태도'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자기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지난 경험이다. 신록이 경이로운 오월과 낙엽이 소산할 시월, 녹음이 짙푸른 여름과 찬눈이 내리며 내리는 겨울, 거센 바람과 눈부신 햇살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물이 돌아 흐르는 개울, 누런 늑대와 노란 뱀아리, 그늘진 부엉이 소리와 가벼운 회피로 소리, 갈자 깨기와 사과 따기 등등과 같은 정서적 체험성의 노출 그리고 서서히 그 어느 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채질 이런 풀림의 경험은 '자기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로스트의 시로 되돌아가 보자. 시 속의 '나'는 갈림길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저렇게 머뭇는 '자기 태도'에 따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택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무성할 잔디들이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이는 길을 결국 택했다. "먼저 보던 길은 훗날로 미루어 놓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의 태도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시 속의 '나'가 누구인지 사실 엄격하게 말할 수 없다. 읽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글 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객관이나 독자중심이 하는 글 읽기 방법이 논란되기도 한다. 어쩌되었든 여기서 '나'가 만약 프로스트라면, 그가 뉴잉글랜드에서 '자기 태도'를 카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나 그는 자작나무와 숲이 우거진 시골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보잘것없게 사람이 엮어가는 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많이 지나간 듯 보이는 길보다는 한적해 보이는 길을 걷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결국 그 길을 선택해 걸으면서 생활감정을 생각으로 정리하는 투박한 시인, 다시 말하면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을 소박하게 드러내는 시적 여정을 걸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 감성의 교감을 나누는 낭만주의적과는 다른 서정시인, 또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기 태도'를 보여주는 리얼리스트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기호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자기 태도'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느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태도를 갖게 마련이다. 마치 나의 걸음걸이가 남과 다르듯이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길을 가다보면 일찍부터 크고 작은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아직 어릴 적 일이지만, 이때에 가까운 길을 택하는 아이가 있는가하면 연막을 넘어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커가면서 '자기 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숲의 너비와 높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 가령,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더 지나면 '자기 태도'가 한층 깊어진 치우치는 단순 선택보다는 균형해 집어가는 다중 선택을 취하게 된다. 가령, 인간적 자유와 공동체, 밖으로의 사랑과 안으로의 자각, 무한 경쟁과 공동 분배 등등과 같은 가치 또는 차이는 이성이나 따뜻한 감성이나 하는 인식의 편편에 대하여 상대적인 '자기 태도'를 갖추게 된다. 우리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독특한 자만의 길을 이렇게 택해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랑이진 길에 서서 머뭇거리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려는 필요도 긴 기다림인지 모른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말이지만, '가지 않은 길'은 늘 공공공중

을 자아내는가보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스트의 마지막 스승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먼 훗날/ 어디선가 한순간이며 말하게 되리라/ 두 길이 숲에서 갈라졌는데,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다/그런데 그것이 정말 큰 차이를 가져왔다.'

##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두 길이 노랗게 물든 숲에서 갈라졌다,  
인타깝게도 나는 그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한일 길손이었기에, 흔적을 서서  
큰 나무 밑 땅에서 굽어진 한쪽 길을  
멀리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다, 역시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무성한 잔디밭이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그 잠으로 말려지면, 사람들이 지나쳐서  
둘 다 비슷하게 밟혀져 있었지만

그날 아침 그 두 길은 모두  
발길이 닿지 않아 싱그러운 채 남아 있는 낙엽에 묻혀 있었다.  
아름답고, 앞서 지켜보던 길은 훗날로 미루어놓고서  
해지만 길은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먼 훗날  
어디선가 한순간이며 말하게 되리라:  
두 길이 숲에서 갈라졌는데,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큰 차이를 가져왔다.

## 바둑대회 내년 5월로 연기

본회가 주관하고 한 바둑대회가 2011년 5월로 연기됐다. 지난 11월 7일에 개최되고 했던 대회는 사실관계상 홍보부족으로 참가 신청자가 몇 명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홍보, 참가신청을 받아 개최하고 한 것이다.

## 동창회장배 바둑대회

1. 일시 : 2011년 5월 14일(土) 9:00
  2. 장소 : 서울교육대학(서초동)
  3. 참가신청 : 동창회
  4. 경기 : 1) 단체전 1팀 3명 총호선  
구성  
① 학과대표 1명은 額大 재학생 可  
② 직장대표 (中·高·大學 또는 회사)  
③ 임원즈 (친구 또는 동호인끼리)  
2) 개인전  
① 최강전 재학생, 졸업생 총호선  
② A組戰 2~3급 총호선  
③ B組戰 4~5급 총호선  
④ C組戰 6~7급 총호선
- ※ - 단체전과 개인전은 중복출전 不可  
- 예선전은 리그, 본선은 토너먼트로
5. 사상은 단체전 및 개인전 조별명 1,2,3위
  6. 참가비 : 10,000원
  7. 신청방법 : 아래 제과로 입금 후 주소, 성명, 학과, 입학년도, Fax, E-mail 등으로 연락바람.  
(하나은행) 221-910158-88607 번주선
  8. 신청기간 : 2011년 4월
  9. 참가자 전원에게 中食 및 紀念品이 제공됨.
  10. 주최 : 蔚山大學, 蔚山大學 同窓會 共同  
주관 : 蔚山大學 同窓會
  11. 후원 : 협찬을 기다립니다.
  12. 연락처 : Tel) 02-6399-6500  
Fax) 02-6399-6501  
E-mail) snvesa@hanmail.net

## 2011년도 제3회 청관대상 후보자 추천

- 마감일자 : 2010년 12월말
- 추천서 양식 : 동창회홈페이지 참조
  - 청관대상후보추천서
  - 공적조서
  - 이력서(사진첨부)
  - 기타 공적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1통
- 시 상 : 2011년 2월 학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
- 서류를 보내실 곳 : 0100-130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바비영3차 1807호
- ※ 기타
  - 추천서 제출은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회 초청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접수치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검사로 전신의 모든 암을 진단!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검사시간 대폭 단축!



서울지역  
본원  
최초도입!

## PET-CT란

양전자방출촬영기(Positron Emission Tomography)와 컴퓨터단층촬영기(Computed Tomography)를 하나로 합친 암진단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종양을 ct, 감마카메라 등에 비해 월등히 앞선 시기에 암의 조기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검사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 최고의 해상도로 조기암까지 찾아내는 최첨단 검사입니다.

### 종양

암의 조기진단  
양성과 악성종양의 감별  
암의 병기 결정  
재발 암의 진단  
암 치료의 효과평가

### 신경정신계 질환

치매 또는 뇌종양 진단  
뇌혈관질환 진단  
뇌성마비 진단  
정신질환 감별진단  
간질 환자의 수술 전 검사

###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  
심장근육 생존능 평가